

# 순천시, 원도심 클러스터 비전 보여줄 '시 게임잼' 연다

## 전국 최대 규모 총상금 2천만원! 원도심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주)디오리진과 협업 나서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AI 기술을 결합한 전국 규모의 게임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원도심 클러스터에 입주 예정인 게임 특화 종합 콘텐츠기업인 (주)디오리진과 협업 추진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재 발굴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발전을 다지기 위해 준비됐다.

게임잼이란 게임 제작사·대학교·기관 등에서 주최, 제한 시간 내 참가자들 간 팀을 이뤄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모아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다.

시는 AI 기술과 결합한 게임 개발이라는 차별화를 내세워 'AI로 상상을 현실로'라는 슬로건 아래 총상금 2천만원을 걸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게임잼을 운영한다. 상

금에 (주)디오리진에서 전액 지원한다. 행사는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장소는 원도심 클러스터 거점 중 하나인 순천글로벌웹툰센터이다.

게임 개발 주제는 순천과 연관된 소재로 행사 당일 공개되며 기획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제에 걸맞은 창의적인 게임을 개발하게 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게임 콘텐츠는 「2025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올텐가)」 기간(2025. 10. 17. ~ 10. 19.) 동안 체험할 수 있다.

17세 이상의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누

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게임 개발 경험 및 신청서 충실도 등을 종합 고려해 100명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원도심 클러스터의 기능을 살려 게임이라는 콘텐츠로 새로운 산업 영역을 구축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 장르의 문화콘텐츠를 아우르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업·학생·청년들이 모여드는 문화산업메카 순천의 미래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완도군, 26일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 연다

## 오후 7시 해변공원 야외음악당서 공연·참여형 프로그램

완도군은 8월 26일 오후 7시, 완도 해변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2025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필리핀, 라오스 등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유지에 힘써왔으며,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외국인 근로자 복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군에는 1,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결혼 이민자 가족의 초청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수산업, 농업 등 지역 주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주민 간의 상호 이해 및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문화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군과 외국인 근로자 간 상생과 화합의 메시지



를 담은 드로잉(이미지화) 퍼포먼스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마술·축하 공연 등이 즐거움을 더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인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도 열린다.

부대 행사로는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가면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돼 있으며,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라도퍼포먼스조함이가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주민과도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행사 당일 공연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군과 외국인 근로자 간 상생과 화합의 메시지

원도/장선우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6일, 고흥의 대표 명산이자 국립공원인 팔영산을 찾은 탐방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흥 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 고흥군, 팔영산 등산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고흥의 자연을 품은 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다

군은 하산 후 탐방객들이 모이는 주요 지점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담례품 제공' 등 제도의 장점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리가 일직선으로 솟아 있어 전국 100대 명산에도 이름을 올린 고흥의 대표 관광지다.

이날 홍보 현장에서는 팔영산의 자연을 즐긴 등산객들에게 고흥군 특산물 담례품물의 인기 상품을 소개하고, 민간 기부 플

랫폼 '위기브(WEGIVE)'와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한 간편 기부 방법도 안내해 제도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탐방객들에게는 고흥의 유자, 전복, 김, 쌀 등 다양한 담례품을 직접 소개하며, 기부를 통해 "고흥을 응원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팔영산처럼 고흥의 자연과 문화를 찾는 분들에게 고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과 행사 현장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 많은 분이 고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카메라 뉴스



# 무안군,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으로 마을을 더 스마트하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삼향읍 관동 마을회관과 북룡 마을회관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라남도 디지털 배움터 에듀버스」로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키오스크 사용법(음식 주문, 기차표 예매, 셀프 결제 등) ▲헬스케어 기구 및 건강진단 체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법 ▲스마트폰 기초 활용 및 실생활 앱 사용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무안군 제공



#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정 체험활동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임·이용우)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 아동 가정 5가구 16명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달라이트 담양 전시 관람과 다문화 글로벌 체험관에서 세계 전통의상 입기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웃과 가까워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용우 민간위원장은 초등학생 가정 2가구에 동화책을 선물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 구례군, 특이민원 발생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남 구례군은 최근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구례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읍면민원담당 직원과 구례소 경찰관이 함께 참여했다.

훈련은 발급 시도만으로도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대응절차는 ▲ 민원인 진정 유도 ▲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 비상벨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 특이민원인 제압 후 경찰 인계 순으로 이뤄졌다.

구례/한정호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